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지인 · 부윤정 · 이지선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in Adolescents who have been Bullied

Ji In Kim · Yun Jeong Boo · Jee Seon Yi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of adolescents who had been bullied.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extracted from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of 2014. The data of 1,926 adolescents, in total, who had experienced violence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PSS/WIN. **Results:** The adolescents with an experience of being bullied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al attempts than the average teenagers in Korea. In addition, suicidal thoughts were affected by gender, experience of habitual drug use, subjective happiness, as well as sadness and despair. Suicidal attempts were influenced by gender, grade, smoking experience, experience of habitual drug use, size of the city of residence, subjective happiness, sadness and hopelessness, existence of people to get counseling, and habit of walking for 10 minutes every day. **Conclusion:**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suicidal risk of adolescents having experienced violenc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for suicide prevention targeting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violence and assess the program's effectiveness.

Key Words: Suicidal ideation, Suicidal attempts, Adolescent,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에릭슨(Erickson)의 성격발달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으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프로이트(Freud)는 이 시기를 순조롭게 지나지 못하면 권위에 반항하고 비행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Kim et al., 2013).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자아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순간적 충동에 의한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통계청(2015)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5~24세 남녀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인구 십만 명을 기준으로 한 해 11.1명으로 운수사고 6.1명, 악성 신생물 3.4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9년 이후부터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Statistics Korea, 2011, 2012, 2013, 2014)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Corresponding author: Jee Seon Yi

College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38 Halladaehak-ro, Jeju 690-708, Korea.
Tel: +82-64-741-6513, Fax: +82-64-741-7639, E-mail: yijsn@naver.com

Received: Jul 29, 2015 / Revised: Aug 10, 2015 / Accepted: Aug 16,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제10차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력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37.6%로 전체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이 2.8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살생각은 자신을 해치거나 죽임을 가하려는 생각으로(Bridge, Goldstein, & Brent, 2006), 죽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를 포함한다(Maris, Berman, & Silverman, 2000).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성적, 음주, 약물 사용경험, 흡연, 우울, 부모자녀 관계(Lee et al., 2013; Sohn, 2014; Choi, 2010) 등이 있으며, 특히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우울을 경험하고 이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a, 2014).

자살시도(suicide attempt)는 죽으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사망하지 않은 경우이다(Evans, Farberow, & Kennedy Associates, 2003).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을 경험한 집단에서 30배 이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Park, 2008) 자살생각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자살생각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Park, 2010)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문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무의식적으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중요성이 더 큰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중 42.9%가 그 피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고(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Youth Peace, 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으며(Kim & Lee, 2010; Park, Choi, & Kim, 2013), 부부폭력 및 부모폭력 피해와 같은 가정폭력에 노출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4),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히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한다.

-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파악한다.
-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중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원시자료 이용에 관한 승인절차를 거친 후 제공받았다.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2014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2014-06EXP-02-P-A)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중 표본추출된 800개교의 74,1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종 799개교 72,06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학생 72,060명 중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총 조사대상은 1,926명으로 이를 모두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1044348-20150605-HR-007-01)를 받아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13개 영역, 103개 지표로 구성된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정신건강, 약물 항목을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자가보고 형식으로 조사되었다.

폭력경험 대상자는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1번 이상 있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살시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문항에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특성은 성별, 학년, 학교유형, 학업성적,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약물, 경제상태, 거주지 도시규모, 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슬픔 및 절망감, 고민상담 상대, 주당 하루 총합 60분 이상의 신체활동 일수, 주당 20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 매일 10분 이상 걷기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교 유형은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로 분류하였다. 학업성적 및 경제 상태는 원시자료에서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로 재분류 하였다. BMI는 조사대상자가 입력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 후 저체중, 정상, 위험체중, 비만으로 분류하였는데, 대한비만학회의 비만치료 지침의 기준에 따라 저체중은 18.5 kg/m^2 미만, 정상은 $18.5\sim 22.9 \text{ kg/m}^2$, 위험체중은 $23\sim 24.9 \text{ kg/m}^2$, 비만은 25 kg/m^2 이상으로 하였다. 평생 흡연 경험은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평생 음주 경험은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습관적 약물 경험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신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거주지 도시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행복한 편(매우 행복하거나 행복한 편), 보통, 불행한 편(약간 불행하거나 매우 불행한 편)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는 많이 느낌(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낌), 보통, 느끼지 않음(별로 또는 전혀 느끼지 않음)으로 분류하였고, 슬픔 및 절망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하였으며, 고민상담 상대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학교 선생님, 기타,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주당 하루 총합 60분 이상의 신체활동 일수는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종류에 상관없이)을 하루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없음, 1~4일, 5일 이상으로 분류하고, 주당 20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는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이 없음, 1~2일, 3일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매일 10분 이상 걷기는 최근 7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을 걸은 날이 7일인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신체활동 항목의 분류는 신체활동의 항목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 권장지침 및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를 참고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양측검정 $p < .05$ 로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는 카이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특성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는 최근 12개월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신체적 폭행, 협박, 따돌림 등)을 당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1,926명으로,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 72,060명 중 2.67%였다. 이 중 자살 생각을 했다고 한 경우는 37.6%였고, 자살 시도를 해 본 경우는 19.4%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69.7%로 여학생보다 많았고, 학년은 중학교 3학년이 21.4%로 가장 많았다. 학교 유형은 남녀공학이 70.0%로 가장 많았고, 학업 성적은 ‘하’인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다. BMI는 저체중인 경우가 41.3%로 가장 많았다. 평생 흡연 경험은 없는 학생이 60.1%로 있는 학생 39.9%보다 많았고,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9%로 없는 학생 45.1%에 비해 많았으며, 습관적 약물 경험은 없는 학생이 86.7%로 있는 학생 13.3%에 비해 많았다. 경제 상태는 ‘상’의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 도시 규모는 대도시가 53.0%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행복한 편이라고 하는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는 많이 느낀다고 한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의 상대는 학교 선생님이 24.5%로 가장 많았다. 주당 하루 총합 60분 이상의 신체활동 일수는 1~4일이 54.2%로 가장 많았고, 주당 20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 일수는 3일 이상인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 10분 이상 걷기를 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55.3%로 하고 있는 학생 44.7%보다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Boys	1,343 (69.7)
	Girls	583 (30.3)
Grade	Middle 1st	303 (15.7)
	Middle 2nd	401 (20.8)
	Middle 3rd	412 (21.4)
	High 1st	245 (12.7)
	High 2nd	267 (13.9)
	High 3rd	298 (15.5)
Student composition	Mixed-sex	1,349 (70.0)
	Boys	445 (23.1)
	Girls	132 (6.9)
School achievement	High	706 (36.7)
	Middle	403 (20.9)
	Low	817 (42.4)
BMI	Low	796 (41.3)
	Normal	786 (40.8)
	High	169 (8.8)
	Obesity	175 (9.1)
Smoking	No	1,157 (60.1)
	Yes	769 (39.9)
Drinking experience	No	869 (45.1)
	Yes	1,057 (54.9)
Drug abuse	No	1,669 (86.7)
	Yes	257 (13.3)
Economic status	High	762 (39.6)
	Middle	668 (34.7)
	Low	496 (25.8)
Residential area	Large cities	1,021 (53.0)
	Middle sized cities	812 (42.2)
	Small towns	93 (4.8)
Happiness	Happy	1,017 (52.8)
	So-so	565 (29.3)
	Unhappy	344 (17.9)
Stress	Stressful	932 (48.4)
	So-so	613 (31.8)
	Not stressful	381 (19.8)
Despair	No	921 (47.8)
	Yes	1,005 (52.2)
Counselor	Father	243 (12.6)
	Mother	407 (21.1)
	Brother and sister	156 (8.1)
	Friend	472 (24.5)
	Teacher	82 (4.3)
	Others	72 (3.7)
	No	494 (25.6)
60 minutes a day of physical activity per week	No	468 (24.3)
	1~4	1,043 (54.2)
	≤5	415 (21.5)
20 minutes of strenuous physical activity per week	No	283 (14.7)
	1~2	667 (34.6)
	≤3	976 (50.7)
Walking more than ten minutes a day	No	1,065 (55.3)
	Yes	861 (44.7)
Suicide ideation	No	1,202 (62.4)
	Yes	724 (37.6)
Suicide attempts	No	1,553 (80.6)
	Yes	373 (19.4)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자살 생각은 성별, 학교유형, 평생 흡연 경험, 평생 음주 경험, 습관적 약물 경험, 경제 상태, 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슬픔과 절망감, 고민 상담 상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의 경우가 46.8%로 남학생 33.6%보다 많았고($p < .001$), 학교유형은 여학교가 47.7%로 가장 많았다($p = .045$). 평생 흡연 경험은 있는 경우가 43.7%로 없는 경우 33.5%보다 많았고($p < .001$), 평생 음주경험은 있는 경우가 43.0%로 없는 경우 31.1%보다 많았으며($p < .001$), 습관적 약물 경험은 있는 경우가 55.6%로 없는 경우 34.8%보다 많았다($p < .001$). 경제 상태는 '하'의 경우가 47.0%로 가장 많았고($p < .001$), 주관적 행복감은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한 경우가 64.5%로 가장 많았다($p < .001$). 스트레스는 많이 느낀다고 한 경우가 47.0%로 가장 많았고($p < .001$),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 경우가 60.1%로 느끼지 않은 경우 13.0%보다 많았다($p < .001$). 고민 상담은 학교 선생님과 하는 경우가 47.6%로 가장 많았다($p = .001$).

자살 시도는 성별, 학업성적, BMI, 평생 흡연 경험, 평생 음주 경험, 습관적 약물 경험, 경제 상태, 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슬픔과 절망감, 고민 상담 상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27.1%로 남자 16.0%보다 많았고($p < .001$), 학업 성적은 '하'의 경우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p = .004$), BMI는 비만인 경우가 24.2%로 가장 많았다. 평생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9%로 없는 경우 14.3%보다 많았고($p < .001$), 평생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23.8%로 없는 경우 13.9%보다 많았으며($p < .001$), 습관적 약물 경험은 있는 경우가 40.9%로 없는 경우 16.1%보다 많았다($p < .001$). 경제 상태는 '하'의 경우가 27.2%로 가장 많았고($p < .001$), 주관적 행복감은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한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다($p < .001$).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는 경우가 23.3%로 가장 많았고($p < .001$),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 경우가 30.9%로 느끼지 않은 경우 6.7%보다 많았으며($p < .001$), 고민 상담은 기타의 대상자와 하는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다($p < .001$).

3.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on General Characteristics

(N=1,9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e ideation			Suicide attempts		
		No	Yes	χ^2 (p)	No	Yes	χ^2 (p)
		n (%)	n (%)		n (%)	n (%)	
Gender	Boys	892 (66.4)	451 (33.6)	30.40 ($< .001$)	1,128 (84.0)	215 (16.0)	32.03 ($< .001$)
	Girls	310 (53.2)	273 (46.8)		425 (72.9)	158 (27.1)	
Grade	Middle 1st	200 (66.0)	103 (34.0)	3.00 (.699)	247 (81.5)	56 (18.5)	2.66 (.751)
	Middle 2nd	252 (62.8)	149 (37.2)		316 (78.8)	85 (21.2)	
	Middle 3rd	259 (62.9)	153 (37.1)		339 (82.3)	73 (17.7)	
	High 1st	146 (59.6)	99 (40.4)		192 (78.4)	53 (21.6)	
	High 2nd	163 (61.0)	104 (39.0)		217 (81.3)	50 (18.7)	
	High 3rd	182 (61.1)	116 (38.9)		242 (81.2)	56 (18.8)	
Student composition	Mixed-sex	851 (63.1)	498 (36.9)	6.21 (.045)	1,086 (80.5)	263 (19.5)	4.95 (.084)
	Boys	282 (63.4)	163 (36.6)		369 (82.9)	76 (17.1)	
	Girls	69 (52.3)	63 (47.7)		98 (74.2)	34 (25.8)	
School achievement	High	445 (63.0)	261 (37.0)	4.71 (.095)	582 (82.4)	124 (17.6)	11.11 (.004)
	Middle	267 (66.3)	136 (33.7)		340 (84.4)	63 (15.6)	
	Low	490 (60.0)	327 (40.0)		631 (77.2)	186 (22.8)	
BMI	Low	476 (59.8)	320 (40.2)	6.28 (.099)	658 (83.7)	128 (16.3)	21.07 ($< .001$)
	Normal	494 (62.8)	292 (37.2)		145 (85.8)	24 (14.2)	
	High	112 (66.3)	57 (33.7)		147 (84.0)	28 (16.0)	
	Obesity	120 (68.6)	55 (31.4)		603 (75.8)	193 (24.2)	
Smoking	No	769 (66.5)	388 (33.5)	20.31 ($< .001$)	991 (85.7)	166 (14.3)	46.74 ($< .001$)
	Yes	433 (56.3)	336 (43.7)		562 (73.1)	207 (26.9)	
Drinking experience	No	599 (68.9)	270 (31.1)	28.69 ($< .001$)	748 (86.1)	121 (13.9)	30.03 ($< .001$)
	Yes	603 (57.0)	454 (43.0)		805 (76.2)	252 (23.8)	
Drug abuse	No	1,088 (65.2)	581 (34.8)	41.19 ($< .001$)	1,401 (83.9)	268 (16.1)	87.70 ($< .001$)
	Yes	114 (44.4)	143 (55.6)		152 (59.1)	105 (40.9)	
Economic status	High	495 (65.0)	267 (35.0)	25.42 ($< .001$)	619 (81.2)	143 (18.8)	31.07 ($< .001$)
	Middle	444 (66.5)	224 (33.5)		573 (85.8)	95 (14.2)	
	Low	263 (53.0)	233 (47.0)		361 (72.8)	135 (27.2)	
Residential area	Large cities	634 (62.1)	387 (37.9)	1.18 (.553)	816 (79.9)	205 (20.1)	4.75 (.093)
	Middle sized cities	505 (62.2)	307 (37.8)		654 (80.5)	158 (19.5)	
	Small towns	63 (67.7)	30 (32.3)		83 (89.2)	10 (10.8)	
Happiness	Happy	726 (71.4)	291 (28.6)	141.40 ($< .001$)	874 (85.9)	143 (14.1)	73.38 ($< .001$)
	So-so	354 (62.7)	211 (37.3)		456 (80.7)	109 (19.3)	
	Unhappy	122 (35.5)	222 (64.5)		223 (64.8)	121 (35.2)	
Stress	Stressful	494 (53.0)	438 (47.0)	72.37 ($< .001$)	715 (76.7)	217 (23.3)	25.80 ($< .001$)
	So-so	452 (73.7)	161 (26.3)		534 (87.1)	79 (12.9)	
	Not stressful	256 (67.2)	125 (32.8)		304 (79.8)	77 (20.2)	
Despair	No	801 (87.0)	120 (13.0)	453.86 ($< .001$)	859 (93.3)	62 (6.7)	180.43 ($< .001$)
	Yes	401 (39.9)	604 (60.1)		694 (69.1)	311 (30.9)	
Counselor	Father	157 (64.6)	86 (35.4)	14.88 (.021)	199 (81.9)	44 (18.1)	24.18 ($< .001$)
	Mother	272 (66.8)	135 (33.2)		356 (87.5)	51 (12.5)	
	Brother or Sister	89 (57.1)	67 (42.9)		118 (75.6)	38 (24.4)	
	Friend	308 (65.3)	164 (34.7)		381 (80.7)	91 (19.3)	
	Teacher	43 (52.4)	39 (47.6)		69 (84.1)	13 (15.9)	
	Others	46 (63.9)	26 (36.1)		52 (72.2)	20 (27.8)	
	No	287 (58.1)	207 (41.9)		378 (76.5)	116 (23.5)	
60 minutes a day of physical activity per week	No	298 (63.7)	170 (36.3)	0.82 (.661)	384 (82.1)	84 (17.9)	3.76 (.152)
	1~4	652 (62.5)	391 (37.5)		848 (81.3)	195 (18.7)	
	≤ 5	252 (60.7)	163 (39.3)		321 (77.3)	94 (22.7)	
20 minutes of strenuous physical activity per week	No	175 (61.8)	108 (38.2)	0.932 (.627)	222 (78.4)	61 (21.6)	4.49 (.106)
	1~2	426 (63.9)	241 (36.1)		555 (83.2)	112 (16.8)	
	≤ 3	601 (61.6)	375 (38.4)		776 (79.5)	200 (20.5)	
Walking more than ten minutes a day	No	670 (62.9)	395 (37.1)	0.25 (.613)	843 (79.2)	222 (20.8)	3.33 (.068)
	Yes	532 (61.8)	329 (38.2)		710 (82.5)	151 (17.5)	

자살 생각에는 성별, 습관적 약물경험, 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슬픔과 절망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35배 더 많았고($p=0.034$, $CI=1.02\sim 1.78$), 습관적 약물 경험에 있는 경우가 경험에 없는 경우보다 1.88배 더 많았다($p<.001$, $CI=1.32\sim 2.68$). 주관적 행복감은 불행한 편이라고 하는 경우가 행복하다고 하는 경우보다 2.46배 더 많았고($p<.001$, $CI=1.78\sim 3.40$),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보다 보통인 경우가 1.56배 더 낮았으며($p=.002$, $CI=0.49\sim 0.85$),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 경우가 느끼지 않은 경우보다 8.43배 더 많았다($p<.001$, $CI=6.61\sim 10.76$) (Table 3).

자살 시도는 성별, 학년, 평생 흡연 경험, 습관적 약물 경험, 거주지 도시 규모, 주관적 행복감, 슬픔과 절망감, 고민 상담 상대, 매일 10분 이상 걷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49배 더 많았고($p=.011$, $CI=1.09\sim 2.04$), 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3학년이 1.72배($p=.017$, $CI=0.37\sim 0.90$), 고등학교 2학년이 2.04배($p=.005$, $CI=0.30\sim 0.80$), 고등학교 3학년이 1.75배($p=.026$, $CI=0.35\sim 0.93$) 적었다. 평생 흡연 경험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57배 더 많았고($p=.002$, $CI=1.17\sim 2.10$), 습관적 약물 경험에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52배 더 많았다($p<.001$, $CI=1.76\sim 3.62$). 거주지 도시 규모는 군 지역에 비해 대도시 2.23배($p=.032$, $CI=1.07\sim 4.68$), 중소도시 2.11배($p=.047$, $CI=1.01\sim 4.44$) 더 많았다. 주관적 행복감은 행복한 편이라고 한 경우보다 불행한 편이라고 한 경우가 2.05배 더 많았다($p<.001$, $CI=1.44\sim 2.91$).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 경우가 느끼지 않은 경우보다 4.85배 더 많았고($p<.001$, $CI=3.56\sim 6.61$), 고민 상담 상대는 없는 경우에 비해 어머니인 경우에서 1.64배 적었으며($p=.018$, $CI=0.40\sim 0.92$), 매일 10분 걷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에 비해 1.31배 더 많았다($p=.045$, $CI=1.00\sim 1.71$) (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 경험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인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중 자살생각을 했다고 한 경우는 37.6%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Park (2015)의 연구의 16.2% 보다 많았고,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19.4%로 Sohn (2014)의 연구 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

과 자살시도가 높다는 Nam (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감정 및 자기 조절력이 미숙한데 특히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서 취약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어,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는 성별, 습관적 약물 경험, 주관적 행복감, 스트레스, 슬픔과 절망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 시도는 성별, 학년, 평생 흡연 경험, 습관적 약물 경험, 거주지 도시 규모, 주관적 행복감, 슬픔과 절망감, 고민 상담 상대, 매일 10분 이상 걷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습관적 약물 경험, 주관적 행복감, 슬픔과 절망감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에서도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은 1.35배, 자살시도는 1.4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연구(Yoo, Son, & Nam, 2008; Park, 2008)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발달과정과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Kim & Kim, 2014), 추후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이나 심리상담 진행 시 성별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습관적 약물 경험이 있는 경우는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자살생각은 1.88배, 자살시도는 2.5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u 등(2004)의 연구에서도 약물 남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 5배 더 높은 자살시도를 보였다고 하였는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청소년에게 약물 경험을 방지할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행복감은 불행한 편이라고 하는 경우가 행복하다고 하는 경우보다 자살생각은 2.46배, 자살시도는 2.05배 더 많았으며,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 경우가 느끼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생각은 8.43배, 자살시도는 4.85배 더 많았다. Yoo 등 (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절망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모든 특성 중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절망감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중재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신건강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Oh, 2011), 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더 취약하므로, 주관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정서의 원인과 감정의 표현과 해소 및 조절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로 인한 자살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청소년 상담

Table 3. Factors Affecting the Suicide Ideation

(N=1,9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	95% CI	p
Gender	Boys	1		
	Girls	1.35	1.02~1.78	.034
Grade	Middle 1st	1		
	Middle 2nd	1.18	0.81~1.73	.382
	Middle 3rd	1.07	0.73~1.58	.700
	High 1st	1.11	0.72~1.71	.618
	High 2nd	0.91	0.60~1.40	.691
	High 3rd	1.03	0.68~1.57	.863
Student composition	Mixed-sex	1		
	Boys	1.26	0.94~1.68	.112
	Girls	1.17	0.73~1.88	.493
School achievement	High	1		
	Middle	0.86	0.62~1.17	.348
	Low	0.82	0.62~1.07	.155
BMI	Low	0.95	0.73~1.22	.689
	Normal	1		
	High	0.97	0.64~1.46	.895
	Obesity	0.74	0.48~1.12	.163
Smoking	No	1		
	Yes	1.12	0.86~1.44	.382
Drinking experience	No	1		
	Yes	1.26	0.98~1.62	.064
Drug abuse	No	1		
	Yes	1.88	1.32~2.68	< .001
Economic status	High	1		
	Middle	0.93	0.71~1.22	.623
	Low	1.13	0.83~1.53	.412
Residential area	Large cities	1		
	Middle sized cities	0.99	0.78~1.24	.936
	Small towns	0.80	0.45~1.39	.431
Happiness	Happy	1		
	So-so	1.10	0.84~1.43	.471
	Unhappy	2.46	1.78~3.40	< .001
Stress	Stressful	1		
	So-so	0.64	0.49~0.85	.002
	Not stressful	0.76	0.55~1.07	.121
Despair	No	1		
	Yes	8.43	6.61~10.76	< .001
Counselor	Father	0.93	0.62~1.37	.717
	Mother	1.00	0.72~1.40	.976
	Brother and Sister	1.24	0.80~1.94	.327
	Friend	0.82	0.60~1.14	.251
	Teacher	1.73	0.98~3.07	.057
	Others	0.68	0.37~1.27	.236
	No	1		
60 minutes a day of physical activity per week	No	0.98	0.68~1.42	.939
	1~4	1.05	0.78~1.41	.743
	≤ 5	1		
20 minutes of strenuous physical activity per week	No	1.04	0.71~1.52	.816
	1~2	0.96	0.73~1.25	.768
	≤ 3	1		
Walking more than ten minutes a day	No	1		
	Yes	0.91	0.72~1.15	.442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Suicide Attempts

(N=1,9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	95% CI	p
Gender	Boys	1		
	Girls	1.499	1.09~2.04	.011
Grade	Middle 1st	1		
	Middle 2nd	0.90	0.59~1.39	.659
	Middle 3rd	0.58	0.37~0.90	.017
	High 1st	0.71	0.43~1.15	.168
	High 2nd	0.49	0.30~0.80	.005
	High 3rd	0.57	0.35~0.93	.026
Student composition	Mixed-sex	1		
	Boys	1.06	0.75~1.50	.718
	Girls	1.15	0.69~1.90	.587
School achievement	High	1		
	Middle	1.01	0.69~1.48	.957
	Low	1.10	0.81~1.51	.516
BMI	Low	1.28	0.95~1.71	.094
	Normal	1		
	High	0.97	0.58~1.62	.917
	Obesity	1.12	0.68~1.84	.642
Smoking	No	1		
	Yes	1.57	1.17~2.10	.002
Drinking experience	No	1		
	Yes	1.26	0.94~1.69	.121
Drug abuse	No	1		
	Yes	2.52	1.76~3.62	< .001
Economic status	High	1		
	Middle	0.69	0.50~0.96	.028
	Low	0.94	0.67~1.31	.736
Residential area	Large cities	2.23	1.07~4.68	.032
	Middle sized cities	2.11	1.01~4.44	.047
	Small towns	1		
Happiness	Happy	1		
	So-so	1.19	0.86~1.62	.278
	Unhappy	2.05	1.44~2.91	< .001
Stress	Stressful	1		
	So-so	0.79	0.57~1.11	.181
	Not stressful	1.02	0.69~1.49	.907
Despair	No	1		
	Yes	4.85	3.56~6.61	< .001
Counselor	Father	0.76	0.48~1.21	.256
	Mother	0.61	0.40~0.92	.018
	Brother and Sister	1.02	0.62~1.68	.911
	Friend	1.04	0.72~1.48	.831
	Teacher	0.66	0.33~1.33	.252
	Others	1.31	0.69~2.46	.401
	No	1		
60 minutes a day of physical activity per week	No	0.76	0.49~1.17	.223
	1~4	0.91	0.65~1.28	.619
	≤ 5	1		
20 minutes of strenuous physical activity per week	No	1.16	0.76~1.78	.481
	1~2	0.83	0.61~1.14	.268
	≤ 3	1		
Walking more than ten minutes a day	No	1.315	1.00~1.71	.045
	Yes	1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살 생각에는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ark (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1.7~2배 정도 높아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ang (2014)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자살생각이 더 많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중학교 1학년은 정체성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로 입시를 처음 경험하는 학년이며 환경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임을 생각할 때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보다 위험성이 크므로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생 동안 흡연을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시도가 1.5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Hong & Jung (2014)의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자살생각이 1.56배 더 크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수준이며, Park (2008)과 Sohn (201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청소년의 흡연은 규범에 벗어난 행동으로 자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적극적인 관심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거주지 도시 규모별 자살시도는 군 지역에 비해 대도시 2.23배, 중소도시 2.11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군 지역보다 유해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입시와 사교육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살 시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살시도 예방 프로그램 계획 시 지역별 환경별 차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고민 상담 상대는 없는 경우에 비해 어머니의 경우가 1.64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Jung (2010)의 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고민 상담의 대상이 어머니일 경우에 자살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자살시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내 의사소통 유형, 부모의 지지 수준,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등을 나타내는 부모-자녀관계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Moon & Kim, 2012),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상담 대상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

히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서 상담자로 어머니를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활동 중에는 매일 10분 걷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에 비해 자살시도가 1.31배 더 높았다. 신체활동은 선행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You & Won, 2010),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 자살 생각이 유의하게 적은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에 학업 수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걷기 등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자살시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10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폭력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생각에는 성별, 습관적 약물경험, 주관적 행복감, 슬픔과 절망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는 성별, 학년, 평생 흡연 경험, 습관적 약물 경험, 거주지 도시 규모, 주관적 행복감, 슬픔과 절망감, 고민 상담 상대, 매일 10분 이상 걷기 실천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 청소년 및 폭력 경험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 시도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향후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학교급, 절망감, 고민상담 상대, 신체활동 등의 적용 내용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erman, A. L., Silverman, M. M., & Bongar, B. M. (2000). Comprehensive textbook of suicid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 (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and *Psychiatry*, 47(34), 372-394.
- Choi, I. J. (2010). Parents-adolescent relationship's influenc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05-130.
- Evans, G., & Farberow, N. L., Kennedy Associates, (Eds). (2003). *The Encyclopedia of Suicide*. New York: Fact On File.
- Ha, J. E. (2014). The influence of school-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parent attachment. *Journal of Youth Welfare*, 16(3), 55-75.
- Hong, M. S., & Jung, H. S. (2014).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smoking level and ideation of yout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7(1), 50-57.
- Kang, D. Y. (201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 Focusing on the middle and high student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han University, Yeongam.
- Kim, J. E. (2009).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and regular exercise of the aged - based on the secondary data of '200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J. R., & Kim, H. S. (2014).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on suicidal impulses in adolescen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310-333.
- Kim, J. Y., & Lee, K. Y.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on th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5), 121-149.
- Kim, Y. H., Son, H. M., An, M. S., Oh, J. A., Lee, Y. E., Lee, J. W., et al. (2013). Health promotion throughout the life span. Paju: Soomoonsa.
- Lee, H. J., Kim, K. S., Kim, K. H., Nam, G. W., Mim, K. W., Lee, S. S., et al. (2013). Factors that affect the suicidal thought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8(7), 1025-1032.
-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4). 10th An Analysis of 2013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11-1460736-000038-10). Cheongw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oon, D. K., & Kim, Y. H. (2012).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protective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 59-83.
- Oh, Y. A. (2011). Relations between mental health and physical activities of middle to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2(1), 103-116.
- Park, E. O. (2008).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purpose: Suicide has been considered a large public healt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65-473.
- Park, G. Y., Choi, Y. R., & Kim, B. R. (2013).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 Based on the 2012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1), 155-165.
- Park, H. J. (2015). Effect of Sleep Duration on Suicidal Ideation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8(1), 1-9.
- Park, H. S., & Jung, S. Y. (2010). Development of a multisystem core competency support model to prevent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3), 278-287.
- Park, J. Y. (2010).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siliency on school violence causing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1), 345-375.
- Sohn, S. Y. (2014).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suicidal plan and suicidal attempt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606-1614.
- Statistics Korea. (2011, 2012, 2013, 2014). *Statistics of Youth*. Retrieved July 9, 2015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Youth Peace. (2015, June 5). *On Survey School Violence*. Retrieved July 9, 2015, from http://www.jikim.net/bbs/board.php?bo_table=jikim_sharing3_2&wr_id=516&sca=&sfl=wr_subject&stx=%BD%C7%C5%C2%C1%B6%BB%E7&sop=and
- Wu, P., Hoven, C. W., Liu, X., Cohen, P., Fuller, C. J., & Shaffer, D. (2004). Substance use,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4(4), 408-420.
- Yoo, J. S., Son, J. W., & Nam, M. S. (2008).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9(3), 419-430.
- You, K. U., & Won, Y. B. (2010).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negative emotion, economic level and mental health condition of elderly peopl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1(4), 197-205.